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III-2 :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 시민사회가 말하는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

박다운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년 5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양일 간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가 개최되었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III-2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를 논의했다.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겸 정책위원장(이하 한충목 대표)가 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하 이정철 교수)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이하 김경민 총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국장(이하 신승민 국장), 엄주현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하 엄주현 처장), 이경원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이하 이경원 위원장)이 참여했다.

세션은 당일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美 대통령 사이의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의의와 평가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정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며 "남북관계를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는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또 다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고 제시했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바가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여름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 시기였다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회담의 만남과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8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존 볼턴 당시 美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의 반대로 결국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8월 5일 유감의 뜻이 담긴 김정은의 친서가 백악관에 전달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자하는 계획과 남북 관계 개선의 딜레마 속에서 정책 노선이 충돌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북 전단 문제가 불거지며 북한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

금년도 다가오는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넘길 지에 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져만 간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군사적 조치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정치적·군사적 회복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협력이 보건 협력의 기본임을 언급하며, 백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비가 증강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김경민 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봉쇄 정책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결사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적 압력을 통해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 내며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기대의 미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의 대화 참여 유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신승민 국장은 남북관계발전은 적개심과 증오를 버리고,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기 성찰과 참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과거 한국 교회는 냉전과 분단 체계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이제부터라도 기독교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참여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교류하여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는 등의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후 "생명 공동체로써 쌀을 나누자!", "군비증강과 대북전단살포 및 군사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평화서명(한미연합훈련 중단) 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히며, 세계, 특히 미국 교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엄주현 처장은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외부의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생존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서는 사활의 기로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가 중단되었으며, 북한에서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신이 수차례 남북교류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걸림돌이 다른 아닌 남한의 반대 여론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따라서 남한 내부에서 이른바 색깔론과 이념 논쟁 등의 혼란이 본격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심을 해소하고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한미군사훈련은 북을 향한 적대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2045년 해방 100년을 맞을 때는 민족 통일 관계가 형성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정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신뢰라고 설명했다. 신뢰는 예측가능성과 유대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북한에 통보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가 채 일 년도 안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총장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분석하며, 앞으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남북미 삼각관계를 선순환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 등이 지켜지고, 역사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시민사회 운동의

로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f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2 :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 시민사회가 말하는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

이가는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5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한 세션이 진행된 가운데 22일(토)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2에서는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 시민사회가 말하는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약 80분에 걸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세션은 좌장을 맡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겸 정책위원장 한충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정철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김경민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국장 신승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엄주현,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이경원이 참가하였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2는 현 정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각계 및 시민사회의 진단과 바람을 들어본다. 이를 통해 현 시기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정철은 며칠 전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정상회담은 대북정책만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기에 많은 판단은 어렵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왜 경색되어 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2019년 한미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2021년의 평화 프로세스가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균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하반기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점을 향해 남북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상기하여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한 신호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보건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정치적, 군사적 남북관계에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김경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고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꼽았고, 이정철 교수와 마찬가지로 향후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에 따라 하반기 남북관계 모습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한미군사연습에 반대하는 강력한 시민운동과 대중운동을 통해 군사훈련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국장 신승민은 남북관계발전은 상호신뢰회복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며 상호신뢰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성찰과 참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남북의 사회적 교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좌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종교계의 역

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남북교류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엄주현은 남북 모두 과거에 인도적 지원만을 매개로 남북교류협력을 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음에도 남북교류부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다루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 의료 부문만 다룬다고 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좌장은 인도적 지원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로 남북관계에 이 상황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이경원은 신승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상호신뢰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고 전작권 반환문제와 외국군 철수 문제를 민족의 자주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 이정철은 군비통제 자체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군사적 협력 관계의 형성이라고 보았고 군비통제를 핵군축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민족의 염원으로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임을 강조하였고 관료들이나 정부 부처들이 관료적 논리로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민은 추후 교회를 방문하고 교단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대화하고 서명운동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며 이경원은 신뢰를 재차 강조하며 실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한충목은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입장 표현을 기대한다며, 이를 향한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세션을 종료하였다.